

# 김남훈 변호사 상법 기본강의

출제가 반복되는 회사법 중요쟁점을 중심으로 상법 전형적인 답안작성 방법 연습  
선택형 출제예상지문, 변시 및 모의시험 기출지문 종합정리  
저명한 교수기본서의 수험용 정리 완성

- 강의일정 2016년 2/12(금) ~ 2/25(목), 오전·오후, 총 20 회, 월~토  
오전 9:00 ~ 1:00  
오후 2:30 ~ 5:30  
※ 2/15(월), 2/19(금) 강의없음  
※ 회사법 (9회) ➡ 어음수표법 (5회) ➡ 상법총칙 (2회) ➡ 상행위법 (2회) ➡ 보험법 (2회)  
순서로 진행합니다.  
※ 별도의 진도표는 없습니다. 예습은 매일 60페이지 분량을 읽어 오시기 바랍니다.

- 교 재 상법강의(송옥렬 저)  
+ 단권화 보충자료(제공)  
+ 법전 (지참)

- 수강특전 “It's Bar Exam 변호사시험 상법 기출해설집” 무료제공

- 강의진행 I. 상법의 학습목표

- 상법은 **회사법을 중심으로** 학습해야 합니다. (i) 사례형에서 회사법이 100점 이상의 분량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, (ii) 선택형에서도 50% 이상인 10문제 정도가 회사법 부분에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. 또한 (iii) 기록형에서 제2회 변호사시험에서는 ‘**전단적 대표행위**’의 효력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고, 제3회 변호사시험에서는 **영업양도와 관련된** 문제가 출제되었고, 제5회 시험에서는 **표현대표이사와 백지어음 및 지급제시의 효력과 관련된**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. 따라서 중요 테마에 대하여는 기록형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할 것입니다.

## II. 강의진행방향

- 사례형과 기록형을 대비하기 위해서 **최근 10년간 사법시험에 출제된 모든 쟁점**을 정리할 것입니다. 사법시험에 출제된 쟁점은 수험적으로 중요한 쟁점이므로 변호사시험의 출제도 당분간은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. 또한 **변호사시험과 모의시험에 출제된 쟁점**도 모두 정리할 것입니다.
- **실무적으로 중요해서 변호사시험의 특성상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**도 정리할 것입니다. 또한 상법은 **전형적인 답안작성 방법**이 있기 때문에 강의 또한 이러한 점을 중심으로 하여 진행될 것입니다. 물론 선택형으로 출제되는 부분은 선택형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리할 것입니다. 즉 상법의 중요 쟁점을 **선택형과 사례형(기록형)으로 구분하여 강의를 진행**할 것입니다.

## III. 교과서를 수험서로 만들기

- 강의교재로 정한 상법강의(송옥렬 교수님)은 위와 같은 학습목표와 최근의 출제경향에 가장 부합하는 기본서입니다. 따라서 **수험의 마지막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교과서를 철저하게 수험서로** 만들겠습니다. 즉 보충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보충자료를 제공하여 **별도의 기본서나 강사요약서가 필요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단권화**를 하겠습니다. 또한 **밑줄 작업도 병행하면서 강의를** 진행할 것입니다. 물론 수험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은 생략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입니다.
- 위와 같은 강의를 통하여 **제6회 변호사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강사요약서로 전환하지 않고 사례집과 선택형 문제집만을 추가하는 것으로, 그리고 그 이후의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개정법과 최신 판례만 추가하는 것으로** 변시에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## IV. 제1회 ~ 제5회 사례형 상법 100% 적중

다음 문제는 2015년에 진행한 상법 진도별 모의고사 중 7회 차 문제의 일부입니다.

- A주식회사는 2015. 5. 이사회결의를 거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당시 회사의 대표이사인 P의 주도하에 이익배당에 대한 결의를 하여 배당하였다. 그 당시 A주식회사의 총 자산은 80억 원, 부채는 50억 원, 자본준비금 5억 원, 이익준비금 8억 원, 미실현이익은 12억 원, 주식의 액면가 1만 원, 발행주식총수 5만주이었다.

〈문제4〉 위의 이익배당과 관련하여 A주식회사의 채권자 M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하여 서술하시오. (25점)

- 제5회 변호사시험에서는 **경영판단의 법칙(10점), 비상장회사의 대표소송(20점), 상장회사의 대표소송(10점), 신주발행의 적법성과 이사의 자기거래(20점), 위장납입(10점), 위법배당에 대한 책임(30점)**이 출제되었습니다.
- 물론 모두 수업시간에 출제예상쟁점으로 강조했고, 진도별 모의고사에서도 출제했던 문제들이었습니다. 특히 그 중에서 위법배당에 대한 책임은 일반적으로 출제예상문제로 언급이 되지 않는 문제입니다. 그러나 **상법 제462조의 입법취지와 관련하여 출제가 예상되었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항상 강조하였고, 진도별 모의고사에도 위와 같이 출제하여 실제**

변호사시험에 적중하였습니다.

- 이와 같이 제1회 시험부터 제5회 시험까지 사례형과 기록형에 출제된 상법 쟁점은 100% 적중하였습니다. 따라서 출제경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100% 예상하는 김남훈 변호사를 믿고, 딱 10일만 상법에 미쳐보시기 바랍니다. 복습위주로 강의만 철저히 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. 김남훈 변호사가 안내하는 대로 10일만 노력하시면 상법 때문에 고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. 아니 오히려 상법 덕분에 변시 공부에 수월해 질 것입니다.